

與 朝鮮의원 만남 文 “내·외부 단합·확장 때 지지 만들어져”

文, ‘더민초’ 의원 68명과 간담회 “지지자 참여하게 손 맞잡아 달라 민주당, 혁신DAN에 자부심 가져 퇴임때 까지 혼신의 노력 다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조선의원 초청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더불어민주당 조선 의원들과 만난 가운데 ‘외연 확장’ 중요성을 당부했다. 최근 민주당 강성 지지층 목소리가 커진 데 따라 민주당의 외연 확장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 데 따른 우려 섞인 목소리로 보인다. 민주당이 내년 대통령 선거 대비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외연 확장에 나선 가운데 힘을 실어준 것으로도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민주당 조선 의원 모임 ‘더민초’ 소속 의원 68명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좋은 가치를 갖고 있는 진보가 이를 구현하는 정책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단합하고 외연을 확장할 때 지지가 만들어진다. 그 지지자들과 함께 참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선들이 강한 자신감을 갖고 지지자들이

참여하도록 손을 맞잡아 달라”고 당부했다.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은 민주당에 대해 “민주주의, 인권, 평등, 복지, 남북 협력, 환경, 생태, 생명 등 가치를 추구하는 정당으로 혁신 DNA를 갖고 있는 역동적, 미래지향적 정당이라는 면에서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조선 의원 모임 ‘더민초’ 운영위원장인 고영인 의원은 문 대통령 발언에 이어 대표로 나서 “대통령의 조선 간담회 요청에 대해 보고를 받자마자 일체의



문재인 대통령이 3일 더불어민주당 조선 의원모임 ‘더민초’ 소속 의원 68명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

망설임 없이 바로 수락한 것과, 한·미 정상회담의 큰 성과에 대해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고 의원은 문 대통령에게 “코로나가 사회적 약자의 더 큰 고통을 초래한 만큼 재난지원금과 전 국민 고용보험, 손실보상에 대한 비상한 조치와 함께 보다 체계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요청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조선 의원과 자유토론도 했다. 자유토론에서는 최근 현안인 부동산 문제와 관련 한국토지주

택공사(LH)의 과감한 조직 개편과 인적 쇄신, 값싸고 질 좋은 아파트 공급방안에 대한 건의 등이 나왔다.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한 자영업, 중소기업, 청년 등을 포용할 수 있는 재정 정책 필요성도 나왔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군 장병 기본 처우 개선 또한 조선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했다.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장려 차원에서 제시한 백신 휴가제와 관련 중소기업, 일용직 근로자도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조치 필요성도 제안

됐다. 이 밖에 신재생 에너지 산업 분야 확대, 청년 일자리 및 주거 국가 책임제, 국가 균형발전 관련 제도 개선, 2018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을 위한 정부 조치 등 현안에 대한 조선 의원들의 의견도 나왔다.

조선 의원들의 정책 제안에 문 대통령은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를 회복하며 나아가 도약의 기회로 삼기 위해 우리 정부는 퇴임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조선 의원들이 제기한 문제 하나 하나를 마음에 새기겠다”고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상황과 관련 “국민들이 여름 휴가를 잘 즐기고, 마스크를 벗고 추석을 추석답게 가족과 만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조선 의원들과 간담회에서 “역대 정부가 하지 못한 검찰 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이 아직 완결된 게 아니라 방향을 잡았고, 궁극적인 완결에 이르게 될 것”이라며 권력기관 개혁 추진 의지도 밝혔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산업부, 천연가스 비축의무량 상향

동절기 한파에 공급부족 등 대응 비축의무량 산정방식 현실화

동절기 이상한파 등 천연가스 공급부족 등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스공사의 천연가스 비축의무량 산정방식을 현실화하고 비축의무량도 상향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가스도매사업자인 가스공사의 천연가스 비축의무량 강화를 위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및 ‘천연가스 비축의무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4일 입법 및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28일 공고한

‘제14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 상 천연가스 수급관리 강화를 위한 후속조치로, 동절기 이상한파 등에 따른 급격한 수요증가, 천연가스 수입 차질로 인한 예상치 못한 공급부족 등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비축의무량 산정방식이 개선된다. 그간 가스공사는 천연가스 비축의무량 산정시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실제 사용할 수 없는 불용재고(Dead Stock)를 포함해 천연가스를 비축했으나, 앞으로는 비축의무량 산정시 불용재고를 제외

해 수급 위기시 실제 가용할 수 있는 물량 기준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상한파 등에 따른 천연가스 수요변동성 확대, 천연가스 수입 차질 등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가스공사 비축의무량을 기존 7일분에서 9일분으로 상향했다.

산업부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10월까지, 천연가스 비축의무에 관한 고시 개정안은 7월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벤처지주 자산기준 5000억→300억 축소

공정위, 공정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

벤처지주회사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는 등 혁신성장을 위한 투자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을 6월 4일~7월 1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2월 30일 시행되는 개정 공정거래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기업집단법제 관련 제도개선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우선 벤처지주회사로 인정받는 자산총액 기준이 현행 5000억원에서 대폭 300억원으로 축소되고,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벤처기업 외에 R&D 규모가 연간 매출액의 5% 이상인 중소기업도 포함하도록 했다. 또,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기업가치를 실현시키는데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 대기업집단 소

속회사로 계열편입을 유예하는 기간을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다만, 벤처지주회사제도를 악용하는 사익편취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총수일가가 자·손자·증손회사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엔 벤처지주회사가 될 수 없도록 하고, 벤처지주회사가 지주·자·손자·증손회사와 특수관계인과의 내부거래에 관한 자료를 매년 공정위에 제출하도록 했다.

개정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한 기업형벤처캐피탈이 조성한 펀드에 투입되는 외부자금의 상한을 40% 이내에서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외부자금 상한을 법에서 허용하는 최고 수준인 40%로 설정하고,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의 경우와 동일하게 CVC가 투자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계열편입 유예기간도 10년으로 확대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산재 사망사고 감축위해 전력 다하라”

안경덕 고용부장관, 공공기관장 회의

안경덕 고용노동부장관이 올해 처음 모인 공공기관장들에게 주문한 1순위는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줄여달라는 것이었다.

안 장관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산하 공공기관장 회의를 열어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현장의 안전조치 지도·감독, 안전에 대한 인식개선 등에 전력을 다하라”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 4월22일 평택항 컨테이너에 깔려 숨진 20대 노동자 이선호씨 사고에 이어 현대중공업, 현대제철, 고려아연 등 산재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중공업의 경우 지난 2월에 사망사고가 발생해 고용부의 집중 감독을 받은 뒤 또 사망사고가 났다. 지난달 30일에는 울산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에서 컨테이너 청소 작업을 하던 노동자 2명

이 질식사했다.

이날 회의는 올해 첫 고용부 산하 기관의 주요사업 및 현안을 보고받는 자리였다. 그럼에도, 안 장관은 최근 산재 사망사고의 심각성을 의식한 듯 산재 예방을 위한 현장 내 안전조치를 거듭 강조했다.

안 장관은 “건설·제조업 등 산재 다발 위험 분야 밀착관리와 추락, 끼임, 필수 안전보호구 미착용 등 3대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해 사망사고 감축에 더욱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기업의 자율적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적극 지원하라”고 당부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안전을 소홀히 한 경영 책임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안 장관은 코로나19에 따른 취약업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회복과 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장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종, 취약계층의 고용회복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노사발전재단, 건설근로자공제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잡월드, 한국고용노동교육원 등 12개 공공기관장이 참석했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

배달 노동자, 산재 최대 1500만원 지원

근로복지공단-우아한형제들 등 의료·생계비 지원 업무협약 체결

앞으로 음식 배달을 하다 교통사고를 당한 ‘배달 노동자’(배달 라이더)는 산재보험을 통해 최대 1500만원의 의료·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근로복지공단과 우아한형제들,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은 외식업 배달 라이더의 의료·생계비 지원을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3일 밝혔다.

공단은 현재 업무상 사고를 당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인 배달 라이

더 등에게 산재보험을 통해 치료, 보상 등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근로 특수성으로 산재보상에 취약한 배달 라이더는 음식 배달 중 사고를 당했을 때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공단은 이번 협약을 통해 배달 라이더가 업무상 사고로 산재보험 요양을 신청하면 최대 1500만원의 의료·생계비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의장은 사재 20억원을 기부해 기금을 조성했다. 우아한형제들은 기금 운영 지원과 배달 라이더 대상 홍보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기금의 관리와 배분을 맡았다. /세종=원승일 기자